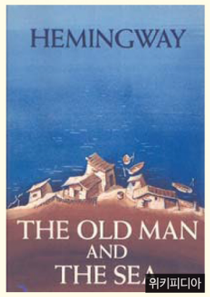
고전 읽기 3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한계에 부딪혀도 포기 않고 사투…
늙은 어부가 지켜 낸 건 '인간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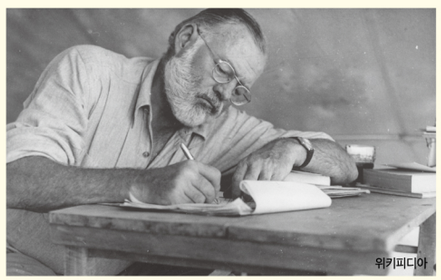


1952년 출간된 『노인과 바다(The Old Man and the Sea)』 초판본 표지.

어떤 문학 작품이 출간 이틀 만에 500만 부가 팔려 나갔다고 하면 믿어지나요? 이 진기록의 주인공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The Old Man and the Sea)』입니다. 1952년 출간된 이 소설은 20세기 미국 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꼽힙니다. 이 작품으로 헤밍웨이는 퓰리처상(1953년)과 노벨 문학상(1954년)을 받았어요. 망망대해에서 자기 몸집보다 커다란 물고기와 싸우는 노인의 모습은 수많은 젊은이의 가슴에 불을 지폈답니다.

84일간 허탕만 친 노인 … "그래도 포기란 없다"

늙은 어부 산티아고에게는 운이 지지리도 따라 주지 않았어요. 84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갔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거든요. 노인은 이튿날에도 바다 한가운데로 향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노인의 낚싯대에 커다란 청새치가 걸렸어요. 노인은 사투를 벌인 끝에 자신의 배보다도 큰 청새치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20세기 미국 문학의 거장 어니스트 헤밍웨이입니다.

하지만 곧 상어 떼가 달라붙어요. 상어 떼는 노인이 애써 잡은 청새치를 야금야금 뜯어 먹었죠. 노인은 청새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상어 떼와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청새치는 상어 떼에 모조리 뜯어 먹혀 뼈만 앙상해졌어요. 하지만 노인은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고 후회하지 않죠. 이후 마을 어부들은 항구에 정박한 노인의 배에서 커다란 청새치 뼈를 발견하는데요. 이들은 크게 감탄하며 노인을 존경하게 된답니다.

한계에 부딪혀도 희망을 노래하라

헤밍웨이는 망망대해에서 사투를 벌이는 노인의 행동을,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적으로 묘사했어요. 낚싯대를 움켜쥔 손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모습이라든지, 무시무시한 상어 떼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등을 말이에요.

소설 속 노인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위대한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사실 힘없는 늙은 노인이 무시무시한 상어 떼를 이길 방법은 없어요. 그럼에도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워요. 노인은 사투 끝에 청새치의 뼈만 달고 항구로 돌아오죠.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약하디 약해 보이는 노인은 사실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었던 거죠. 포기를 모르는 노인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전합니다.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무려 16년간이나 고쳐 썼다고 해요. 헤밍웨이 자신도 이 소설을 가리켜 "지금 내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글"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모든 걸 놔버리고 싶은 순간, 바다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는 노인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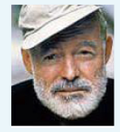
오누리 기자

활동 1 소개된 책의 줄거리를 적어 보세요.

활동 2 스웨덴 한림원이 "독보적인 문체와 스타일로 현대 문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한 헤밍웨이 문체의 특징을 적어 보세요.

활동 3 작가가 쓴 다른 주요 작품들의 제목을 쓰고, 그중 하나를 조사해 줄거리를 적어 보세요.

어니스트 헤밍웨이 (1899~1961)



20세기 미국 문학의 거장

"사람들은 저를 '로스트제너레이션'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부릅니다. 로스트제너레이션(Lost Generation)이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에 환멸을 느낀 미국의 지식인을 일컫는 말인데요. 로스트제너레이션에 속한 작가들은 의욕적이고 우수한 작품을 많이 내놓았답니다.

저는 작가가 되기 전 '캔자스시티 스타'라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는데요. 기자로 일한 경험은 훗날 '헤밍웨이 문체'라고 일컬어지는 저만의 독특한 문체를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감정적인 요소와 불필요한 수식어 등을 배제하고 행동 자체만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문체인데요. 건조하고 간결한 신문 기사와 비슷하죠. 1957년 스웨덴 한림원은 제게 노벨 문학상을 주며 '독보적인 문체와 스타일로 현대 문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했답니다."